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농어촌 기본소득·치즈축제·일진제강 등 군정 전반 문제점 집중 점검

임실군의회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일차 회의를 끝으로, 20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일차 회의를 끝으로, 20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임실군의회는 당초 27일까지 임실군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진제강의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의 이행 상황과 지연 사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하루 연장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논란이 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1차 탈락과 '2025 임실N치즈축제'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와 충분히 협력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며 추후 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된다면, 군민·행정·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

양주영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미선정에 따른 군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이를 위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흠 의원은 들뜬 마음으로 임실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축제가 되었다며, 내년에는 철저히 대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오수행 셔틀버스 노선 신설과 전주행 셔틀버스 운행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과 인사 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규 의원은 음주운전, 도박, 폭행 등 각종 비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재 의원은 토목직 공무원 부족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며 토목직 충원 시 읍·면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8일 진행된 감사에서는 일진제강 심규승 대표이사를 대신해 박영준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왕중 의원은 제2농공단지 조성 시 임실군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사업비 321억 중 군비 246억을 투자한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일진제강은 분양대금 79억을 납부한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신속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준 전무는 내년 1월까지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설·한파 대비 종합대책 가동

임실군, 겨울철 재해 대책 추진 기간 운영

임실군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재해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겨울철 재해 대책 추진 기간 대설 및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단계별 상황 관리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자연 재난 협업 기능별 추진반을 운영해 분야별 사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읍·면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미비점은 즉시 보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한파 대응을 위해 한파 저감시설 135개소, 한파 쉼터 344개소, 한파 응급대피소 2개소를 운영하며, 한파주의보 또는 경보 발효 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한파 응급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독거노인, 기초·차상위계층 등 겨울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지원, 비상 연락망 구축, 수시 안부 확인을 강화해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사업은 2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72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23개 읍면동 및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등 5개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에 570명 증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 모집인원은 △공익활동사업 3,972명 △노인역량활용사업 1,500명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 190명 △취업지원형, 전담인력 62명 등 참여자를 모집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도·철도분야 정부 지원 요청

최경식 남원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적극 건의

남원시에 따르면 최경식 시장이 지난 12월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원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국도·철도분야 숙원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최 시장은 단순한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남원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을 강하게 강조했다.

먼저 최 시장은 지리산권 접근성 강화와 동부 생활권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지도 60호선(인월~산내)과 국도 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해 설명했다.

국지도 60호선은 지리산 뱀사골, 실상사, 오토캠핑장 등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정체와 안전 위험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에코촌 조성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만큼, 기존 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국도 24호선 역시 담양-순창-남원을 연결하는 핵심 관광벨트이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KTX 남원역세권 개발, 스마트팜 혁신단지 등 주요 현안 사업과 직결되는 도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구간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KTX 남원역 일대가 달빛 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사업 추진,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새로운 광역교통 중심지로 떠오르는 만큼 'KTX 남원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반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남원역에 대해서는 전북 동부권(임실, 순창), 전남 북부(구례, 곡성), 지리산권(하동, 산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용 수요를 담당하는 거점 역으로,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드론·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 연계체계는 물론 영호남 홍보·교류 공간, 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종합 교통복합지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남원이 향후 남부권 교통·물류·관광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SOC 사업들은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생활이 달라지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자체 부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사 예선 1차는 지자체 부분 140건에 대해 국민·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50명이 국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온라인 심사를 진행, 이후 예선 통과 사례 38건을 대상으로 전문가·국민 20인 심사위원단의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남원시는 지속되는 소아 야간 진료 공백으로 인해 주민들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내 '인구감소지역 특례 기준'을 발굴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소아진료 관심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이 신설되고 지원금도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남원시는 소아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의료진 유치 활동을 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소아 진료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662명 지급

순창군은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를 통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 여건 안정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11월 28일 지급 대상은 총 662명으로, 총 지급액은 12억 950만 원에 달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금은 졸업 학교에 따라 구분됐다. 관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에게는 200만 원, 관내 중·고교 졸업생은 150만 원, 관외 고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100만 원을 받았다.

생활지원금은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출신 인재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주거 취약 가정 주택 개선 사업 완료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 제11대 총동문회(회장 전길수)가 추진한 '도움의 손길 캠페인' 주택 개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2일 수지면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6주간 진행된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프로젝트로, 총동문회가 마련한 4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원우기업의 재능 기부가 투입됐으며, 준공식에는 최경식 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전길수 전북대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원시청의 협조를 통해 생활이 곤란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선정해 추진됐다. 노후 주택 철거부터 내·외부 리모델링, 주거 기능 개선까지 지원해, 어려운 이웃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전길수 총동문회장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이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